

사랑·평화·평등 셋이 합쳐 '감동'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지난 9일 오후 8시 평창 올림픽프라자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개회식이 펼쳐졌다. 축하공연부터 성화봉송까지 개회식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평등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본보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현장을 소개했다.



개회식 종료 후 공연진이 관객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노르딕스키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최보규 선수와 북한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마유철 선수가 성화를 전달하고 있다.



입장하는 남북한 선수단.



패럴림픽 사전 리셉션에서 피아니스트 이희아씨와 성악가 문지훈씨가 공연을 하고 있다. 이희아씨는 장애를 극복한 네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문지훈씨는 한쪽눈 실명을 극복한 카운터 테너로 알려져 있다.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 축하공연.



타오르는 개회식 성화.